



함께 달(月) 보기 제안 시민문화강좌

경술국치 100주년, 역사 되돌아 보기

강사 : 이이화 선생 (역사학자)

• 기간 : 2010년 3월 29일 월요일 오후 7시

• 장소 : 대전시립미술관 강당

[차기 강좌 일정표]

- 4/26 이애주(서울대) 나의 춤, 시대의 몸짓
- 5/24 이민화(KAIST) 유라시안 네트워크
- 6/28 박강수(전 배재대 총장) 변화와 어울림
- 7/26 김영동(국악인) 나의 소리를 향한 여정
- 8/30 대산 김석진(주역인) 천부경, 하늘·땅·사람 이야기
- 9/27 공지영(소설가) 무엇이 소설을 쓰게 하는가?
- 10/25 도종환(시인) 우리 시대의 사랑 법
- 11/29 송변수(대전시립미술관장) 예술 60년의 발자취
- 12/27 이응국(홍익사상연구소장) 주역으로 세상보기

- 주최 : 대전동방문화진흥회 • 행사문의 : 042) 823-8812 (대전동방문화진흥회)
- 후원 : 대전광역시 문화재단, 대전 MBC, 중도일보, CMB, 충청그린문화포럼, (주)청풍, 충청매거진
- 참가단체 : 대전광역시 문화원연합회, 희망의 책읽기 본부, 한국부인회 대전시 지부, 나눔문화 운동본부



• 이이화 약력

1937년 / 대구 출생

73~75년 민족문화추진회 전문위원 겸 국역실장

77~80년 서울대 규장각 해제위원

81~82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전문위원

86~96년 역사문제연구소 운영위원, 부소장, 소장, 계간<역사비평>편집인

89~94년 동학농민전쟁 100주년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

2001년 단재상 수상

2005년 임창순 학술상 수상

2005~2007년 전 서원대 석좌교수

2009년~현재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지도위원,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,

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상임공동대표, 진실과 미래, 국치100년 공동사업추진위원장

“우리는 아직도 사대사관과 식민사관에 물들어 있다.
또한 그런 묵은 찌꺼기를 다 씻지 못한 현실에 살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.
하지만 우리가 민족사를 말한다고 해서
결코 과대 긍정만으로는 그 실상을 바로 제시할 수가 없다.
여기에는 엄정한 비판 정신이 따라야 한다.
모순에 찬 왕조사를 미화한다고 해서 민족적 긍지를 살리는 것도 아니며
묵은 이념을 추구하고 합리화하는 것으로
역사의 실상이 제대로 파악되는 것 또한 아닐 것이다.
봉건왕조에서 민족의 의지를 흐리게 한
통치이념에 대하여는 서슴없이 비판을 가해야 하는 것이며,
민족의 힘이 되어왔던 민중의 움직임과
그들의 항거를 좀더 정당한 기준에서 정리 발굴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.
또 지난날의 문화전통을 모두 계승하여야 하며
민족문화를 꽃피운다고 생각하는 고루한 관념도 선별하고 때로는 과감히 버려야 할 것이다.
사회의 발전과 민족 전체의 공통 분모를 찾아
묵은 것과 새 것, 고루한 것과 진취적인 것, 계승과 재창조를 할 줄 아는
사관의 형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.”